

관광객 6500만명이 찾는데...호텔 객실은 고작 600실



광주, 충장축제·프로야구 효과 등에 외지인 증가세 복합쇼핑몰 잇단 착공...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절실 관광 콘텐츠·숙박 인프라 확충 등 장기 전략 마련해야

광주의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과제다. 5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5성급 호텔이 없는 구조 속에서 중상위급 숙박 시설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질문도 뒤따른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이 실제로 도시에서 머무르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지, 특급호텔 수요를 뒷받침할 체류 기반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광주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문화행사와 축제,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이어지면서 도시 방문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늘어난 방문객이 곧바로 '체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 상당수가 당일 방문에 그치거나 짧은 체류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관광은 여전히 '방문 중심 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광주 방문의 해'가 추진된 지난해 광주를 찾은 방문객 수는 약 650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6.8% 증가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특정 시기에는 방문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가 열린 5월에는 전년 대비 방문객이 약 19% 증가했고, 여름 휴가철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을에는 충장축제와 각종 문화행사가 이어지며 10월 방문객 증가율이 약 29.8%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는 역사·문화·행사가 결합된 도시형 관광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공연·전시 콘텐츠,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같은 국제 행사, 5·18 관련 역사 관광 자원 등이 꾸준히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역시 관광 수요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는 원정 팬들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관광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여기에 스트리트컬처페스타와 다양한 공연·전시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문화·예술 중심 도시라는 정체성이 관광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 관광은 '도시 방문형 관광'의 성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 스포츠와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되며 외지 방문객 유입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문 수요가 반드시 숙박과 회의, 연회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관광업계에서는 광주의 관광 구조를 '단기 방문 중심 도시'로 평가한다. 관광객 상당수가 당일 방문에 그치거나 짧은 체류 뒤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국제회의가 열릴 경우에도 숙박 수요가 인근 도시로 분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광주 도심에서 충분한 객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숙박 구조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광주에서 4성급 이상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호텔은 세 곳에 불과하며 객실 수 역시 약 600실 규모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사한 인구 규모의 광역시와 비교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중상위급 숙박 기반이 제한적인 구조는 관광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관광 소비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 관광 산업에서는 방문객 규모보다 체류 기간이 지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숙박을 동반한 관광은 식음료, 쇼핑, 교통 등 다양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회의나 기업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참가자들이 한 곳에서 숙박과 회의, 연회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특급호텔을 관광 인프라뿐 아니라 MICE 산업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 역시 국제회의와 문화행사가 꾸준히 열리는 도시지만 이를 흡수할 숙박 기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구조를 바꿀 가능성

도 등장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문화시설, 공연장, 호텔 등이 결합된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체류형 관광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경우 연간 방문객이 약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상권까지 포함한

유동 인구 증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광주신세계 확장과 스타필드 광주까지 포함하면 대규모 유통시설 세 곳이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1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대형 복합시설이 들어설 경우 쇼핑과 공연, 전시, 관광, 숙박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관광 콘텐츠 확대와 숙박 인프라 확충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 관광이 체류형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관광 동선과 도시 콘텐츠, 숙박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의 관광 구조가 '방문 중심'에서 '체류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방문객 수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숙박과 소비로 연결하는 체류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피터 성규 C&S호텔 부사장은 "특급 호텔은 단순히 객실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체류 구조와 산업 기반을 반영하는 인프라"라며 "관광과 행사, 비즈니스 수요가 결합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숙박 산업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 증가와 문화 콘텐츠 확대는 분명 긍정적 변화이지만, 체류 기반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도시 관광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문화·예술 콘텐츠와 산업 기반을 연결해 체류 수요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2회 광주 추석의 충장축제'가 잠정 50만명의 관광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프로야구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지난해 108만여명의 야구 팬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6' 출시...AI PC 시장 공략

인텔 코어 울트라 탑재... 'AI 구독클럽' 구매 증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PC '갤럭시 북6'를 국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갤럭시 북6'는 인텔의 최신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3'를 탑재해 멀티태스킹과 AI 작업 성능을 강화했다.

특히 고성능 NPU가 적용돼 전자 대비 AI 연산 속도가 크게 향상됐으며, 이미지 편집과 실시간 번역 등 '갤럭시 AI' 기반 작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배터리 성능도 강화됐다.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통해 완전 충전 시 최대 24시간 동영상 재생을 지원한다. '갤럭시 북6'는 앞서 출시한 '갤럭시 북6 울트라', '갤럭시 북6 프로' 모델과 동일하게 대칭과 균형을 강조한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갤럭시 북6' 사용자는 '갤럭시 AI'를



활용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미지의 배경을 손쉽게 지워주는 'AI 컷아웃'과 선택한 텍스트를 즉시 다른 언어로 변환해 주는 '실시간 번역' 기능으로 학습과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도 자연어로 PC에 저장된 파일과 이미지 등의 자료를 찾거나 PC 설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갤럭시 북6'는 뛰어난 퍼포먼스와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플래그십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며 "'갤럭시 북6'과 함께 일상 전반에서 폭넓은 AI 경험을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AI PC 수요 증가와 함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AI 구독클럽'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AI 구독클럽'으로 PC를 구매한 고객은 작년 4분기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삼성스토어에서 PC를 구매한 고객의 약 25%가 'AI 구독클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구독클럽'의 PC 구독 상품은 24·36·48개월형 세 가지로 구성되며, 무상 수리 서비스와 파손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장승기 기자 sky@

기아, 인턴·신입·경력 채용...역대 최대 규모

청년 취업 기회 확대·모빌리티 신사업 경쟁력 강화

기아가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채용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솔루션,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재경, 글로벌 사업

업 등 총 34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채용 공고는 181개에 달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신입 채용 1일부터 13일까지, 전환형 인턴 채용 8일부터 20일까지, 경력 채용 15일부터 27일까지이다. 직무별 채용 공고 및 지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사

한 내용은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 '기아 탠트 라인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아는 오는 9일까지 대학교 캠퍼스 11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는 기아의 80년 역사를 이끈 도전과 혁신 정신을 소개하고 동문 선배 현장자의 직무 소개와 커리어 멘토링도 제공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2026 WEC' 공식 출전

현대자동차그룹 제네시스 소속 레이싱 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오는 17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EC)'에 공식 출전한다고 1일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2026 WEC 개막전 '이몰라 6시간' 레이스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를 시작으로, 연내

치러지는 WEC 8개 일정을 차례로 소화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두바이에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을 최초 공개한 제네시스는 프랑스 스키스텔레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499 일에 걸쳐 자체 엔지니어링 및 레이싱 운영진, 드라이버 라인업 구성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외부 팀과 기술 및 인력을 교류하는 파트너십 형태가 아닌 차량 개발과 운영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일 제조사 팀으로 WEC에 나선다. WEC 공식 데뷔를 앞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챔피언십 우승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정예 드라이버 라인업을 구축했다.

드라이버 외에도 16개 국적, 총 75명으로 이뤄진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모터스포츠 전 영역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